

조선조 교육·문화 정책과정에 있어서 정파간의 이익갈등 분석* - 16세기 봉당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 병 갑**

〈目 次〉

- | | |
|-------------------|----------------------|
| I. 서 론 | IV. 경서번역정책과정에서의 이익갈등 |
| II. 이론 검토와 분석의 틀 | V. 문묘종향정책과정에서의 이익갈등 |
| III. 이익갈등의 상황적 배경 | VI. 정책적 함의와 결론 |

〈요 약〉

교육·문화정책과정에 있어서 정파간의 이익갈등현상을 16세기의 경서번역정책과 문묘종향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경서번역정책의 경우, 각 정파는 성균관·사학·향교·서당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경서를 번역하는 데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이익갈등을 벌였다. 집권세력인 동인의 의도대로 동인이 존봉하는 인물인 이황의 사서석의(四書釋義)가 교정청의 번역과정에 반영되었다. 이는 동인의 영향력 증대 즉, 정치적 이익과 관련되고 있다. 동인과 서인간에 이익갈등은 경쟁의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갈등의 귀결은 동인의 권력유지였다. 문화정책의 경우 유현(儒賢)의 문묘종향정책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 문제는 남인과 서인·북인간에 전개되었고, 이익갈등의 전개양상은 대립이었으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오현의 문묘종향을 반대한 북인 핵심세력이 권력원에서 축출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주제어 : 이익갈등, 경서번역정책, 문묘종향정책, 봉당, 16세기】

* 이 논문은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방대학성지원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안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I. 서 론

조선조의 정치·행정에 대한 탐구는 한국의 정치·행정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한국의 정치·행정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오늘날 세계는 세계화라는 명분 아래 학문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서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은 한국의 독자적인 정치·행정이론의 창출과 새로운 해석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럴 때만이 한국의 정치·행정학이 국제 무대에서 독자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치·행정학의 논의를 다양화하고 심화하기 위하여서는 한국의 정치·행정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이론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조선조의 정치·행정에 대한 연구는 한국행정의 뿌리를 캐는 작업으로서 행정학 연구의 주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

오늘날 시민단체는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당이 스스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의 정당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선조의 정치·행정 현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조선조의 정치·행정 현상을 검토하여 그 속에서 단점을 제거하고 장점을 계승·발전시키는 작업은 한국의 정치·행정이 온전하게 자리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선시대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문화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정파간에 또는 학자와 관료간에 갈등을 빚었다. 이러한 정파간의 대립이 한국인의 민족성에 기인한다는 ‘당파성론’은 안화(安廓), 이태진(李泰鎮), 정만조(鄭萬祚)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다. 한국정치·행정사 연구에서 정치·행정사상이나 정치·행정인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치세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다.¹⁾ 정치세력에 관한 연구의 경우도 정치적 사건에서 정파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책문제와 관련한 정파의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조의 교육정책은 조선조 사회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물을 어떻게 양성해야 할 것인가이며, 구체적으로 교육기관의 신설문제와 교육기관에서 사용할 교재에 대한 문제 등이 해당된다. 16세기의 경우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1) 정만조는 “1990년 이후 조선중기 정치사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정국의 추이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정만조, 2003: 110)고 하였다.

유교이념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유교이념의 구현에 사용되는 교재가 경서이며, 이의 대중화를 위한 번역정책은 국가의 중요한 교육정책에 해당된다.

문화정책은 문화산업정책·문화예술정책·문화이념정책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조선조는 국가의 이념적 방향이 유교문화국가의 건설에 있었다. 이의 구현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이상적인 유현(儒賢)을 선정하고 이들을 존봉하고 제향하는 문묘종향(文廟從享) 활동에 중심을 두었다. 이리하여 문묘종향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문화이념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6세기 조선조의 경서번역정책과 문묘종향정책에서 봉당(朋黨) 간에 어떠한 이익갈등을 벌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익갈등은 어떤 식으로 해결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16세기 조선정부의 자료와 관인 및 학자의 저술을 분석함으로써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이론 검토와 분석의 틀

1. 이익갈등론적 접근의 적실성

일반적으로 정치·행정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결집되는 것은 정치·행정 사회의 필연적인 현상이다. 정파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파벌 집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파의 형성은 대개 정책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정책문제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발생되고, 이는 이익갈등을 문제화시킨 형태이다. 정책문제가 제기되고 채택되는 과정에는 여러 세력의 참여가 요청되는데 여러 집단의 참여 하에 정책이 형성되고 결정될 때, 합리성은 그만큼 중대된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범위는 매우 크기 때문에 정책의 결정은 다양한 이익과 관련된다. 정파가 대변하는 이익은 이념일 수도 있고, 지역일 수도 있고, 계층일 수도 있고, 지지기반일 수도 있다. 이익의 종류는 정치적 이익, 경제적 이익, 사회적 이익, 문화적 이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파간에는 추구하는 이상이나 지지기반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익갈등의 발생은 동서 고금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조선조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정파가 가지고 있는 규범적 준거·구조·참여자·환경의 차이는 세력 형성의

주요요인이 된다. 이러한 세력의 형성에 작용하는 것은 공익 또는 사익 형태의 이익이다. 이러한 이익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파는 권력을 획득하려 한다. 권력을 점유한 정파는 계속 권력을 점유하려 하고, 점유하지 못한 정파는 권력을 점유하기 위해 활동하게 된다. 권력을 가진 세력과 권력을 갖지 못한 세력 사이에서는 이익이라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것은 조선조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따라서 조선조의 정책과정 분석에 있어서 이러한 이익갈등이론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16세기는 조선조가 개국한지 백년이나 경과하였고, 어느 정도 정치·행정 체제가 완비되어 안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정치세력들은 결집되고, 결집된 정치세력이 어느 정도 세력을 얻게 되어 정파가 형성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훈구파와 사립파이며, 사립파 내부에서 동인, 서인, 남인, 북인의 형성이다. 영남지역의 이황(李滉)학파와 조식(曹植)학파, 기호지역의 이이(李珥)·성흔(成渾)학파, 경기 지역의 서경덕(徐敬德)학파는 하나의 학파이면서 동시에 정파(政派)의 기초를 이루었다.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은 각기 학문적·지역적 중심지를 근거로 형성·발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시기 정치·사상계의 동향은 학연·지연·혈연을 매개로 형성된 여러 세력의 움직임에 의해 근본적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이 시기 정쟁(政爭)이 권력의 쟁취를 전면에 내세운 권력투쟁의 양상을 띠고 있었지만, 동시에 특정한 사유체계, 특정한 정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정호준, 2001: 212).

조선조의 정치·행정은 사립정치라 할 정도로 사립의 영향력을 캤다. 사립의 공론은 유생들이 공론 담당의 주요 일익으로 등장함과 동시에, 유생들의 공론 자체도 정치주도세력과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붕당화(朋黨化) 되어 갔다. 붕당화 된 유생들의 동향과 그들의 정치의식 및 역사의식은 정치·행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는 양상으로 본격화되어 갔다(金燉, 1999: 40). 선조조에 선조(宣祖)와 양사(兩司)는 모두 공론에 입각한 정사운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삼사(三司) 이외에 다른 공론의 주체도 있을 수 있다는 선조의 견해에 대해 양사(兩司)는 별다른 이론(異論)을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조는 조정의 논의가 정당성을 잃었을 경우, 여기에 관여하는 유생들의 행위를 공의(公議)를 표방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金燉, 1999: 37).

2. 분석의 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은 그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떤 규범적 준거를 가지고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자이다. 이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익을 표출하는데, 표출된 이익이 상충될 때는 갈등이 야기되고, 이러한 갈등은 대개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 논리에 따라 조선조의 교육·문화정책 과정에서 정파간의 이익갈등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변인으로 정파가 지니고 있는 규범적 준거·구조·참여자·환경을 설정하였다(李秉甲, 1988: 18).²⁾

규범적 준거는 정파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를 말한다. 이를테면 정파가 표방하는 견해가 이상주의적인가 또는 현실주의적인가 등이 해당된다. 구조는 정부의 조직구조 속에 점유되는 관직의 형태이다. 관료제 내에서 어떤 정파가 상위층을 점유하는가, 또는 하위층을 점유하는가, 정부조직 내에서 정파의 구성 비율 등이 해당된다. 참여자는 정책과정의 제도적 장치 내에 구체적으로 참여한 인물의 특성을 말한다. 이들의 학문적 성향은 어떠하며, 학문적으로 누구의 학통이며, 그들이 지향하는 이상은 무엇인가 등 참여하는 인물의 특성이 해당된다. 환경은 정책문제를 둘러싼 분위기 즉 배경을 의미하며, 이에는 참여자들의 지역과 사회·경제적 기반이 해당된다. 이를 집단에게는 대개 지지기반이 있다. 그들의 지지기반이 경제적으로 중소지주층인가 혹은 대지주층인가? 이들의 지역적 배경이 영남 지역인가 혹은 기호지역인가 등 여러 가지로의 구분이 가능하다.

정파간의 이익갈등은 경쟁·대립·적대 등으로 전개되고, 연합·협상·권력유지·관직에서의 축출 등으로 종결된다. 경쟁이란 경기규칙을 지키는 정도가 높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말하며, 대립은 경기규칙을 지키는 정도가 높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정도가 낮은 것을 말하며, 적대는 경기규칙을 지키는 정도와 상대방을 인정하는 정도가 모두 낮다. 이익갈등의 과정은 이익갈등이 제기되고, 이것이 전개되고, 종결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李秉甲, 1995: 488).

이 논리에 따라 분석의 틀은 이익갈등에 대한 상황적 배경을 논의한 다음, 갈등 문제의 대두, 규범적 준거·구조·참여자·환경이라는 4가지 갈등변인을 중심으로 이익갈등을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갈등의 전개와 종결을 논의한다.

2) 정책의 특성에 따라 분배정책·생산정책·보호정책·재분배정책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야에 따라 체제유지정책, 대외정책, 사회·경제정책, 교육·문화정책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종류의 정책 가운데 16세기 조선조의 교육·문화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III. 이익갈등의 상황적 배경

조선조의 교육·문화정책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논의에 앞서 이익갈등에 대한 상황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조선조에서 정책결정의 기준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잘 나타나 있다. 경국대전은 정부의 조직구조, 기관간의 권한관계, 정부의 모든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행정활동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늘날 정치·행정에서 헌법이나 정부조직법과 같은 위상을 지니고 있다. 『경국대전』은 조선조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범(典範)이므로 조선조의 정책결정은 『경국대전』이 제시하는 틀 안에서 이의 적용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6세기 조선조의 정치는 공론(公論)·공의(公議)와 공도(公道)에 기초한 명분과 의리 그리고 도덕을 주요 행동강령으로 하는 사립정치이다. 이러한 사립정치는 사립파의 미래지향적 가치관과 비판적 현실대응의식 및 자세에 의해 성취된 것이었다(李秉杰, 1999: 157). 16세기에는 사족집단(士族集團)내 봉당의 형성으로 관료제에 정파정치가 도입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특권적 구관료집단과 새로운 봉당 사이에 과도적인 현상으로 사화(士禍)와 같은 마찰이 여러 차례 일어나기도 하였다. 16세기 봉당의 형성에 따른 정치체제상의 변화는 대체로 지주제의 발달로 인해 향촌지주층의 사회적 역할과 정치의식이 증대된 결과였다. 이러한 시대적인 발전 속에서 수가 늘어난 향촌지주들이 향촌사회에 대한 일차적인 지배권을 획득하고자 향당(鄉黨)을 결성하기 시작하였다. 봉당정치는 곧 향촌지주들이 향당을 배경으로 관료제하의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정치운영체계에 영향을 주어 일어난 것이었다(이태진, 1990: 195).

16세기 조선조에서 벌어진 서원 건립 운동은 기묘사화(己卯土禍)후 향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일련의 운동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다. 향사(鄉射)·음례(飲禮)나 향약(鄉約)의 보급운동에는 향촌사회의 안정을 얻고자 하는 목적과 더불어 사립 결집의 구심점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서원은 교육기관이므로 정치적 탄압의 직접적인 대상에서도 쉬이 벗어날 수 있는 이점도 있었다. 사람은 1512년(중종 7) 기묘사화 이후 두 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하려는 노력이 거듭 실패함에 따라, 서원 건립을 통해 결집의 구심(球心)을 얻는데 일단 만족하면서 자발적인 길을 모색하였다(李泰鎮, 1983: 69).

16세기 이후 경명행수(經明行修: 경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행동을 바르게 함;

필자주)를 겸비한 자가 유일(遺逸) 등용의 주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게 되고, 충효(忠孝)가 천거(薦舉)의 주요한 사유가 되는 등 성리학의 이념이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申炳周, 1998: 43). 이 시기 성리학의 학문적 본령은 이기(理氣)철학 문제 가 중심이 되었다. 조선조 성리학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6세기 중엽 무렵부터이다. 그 이전은 사회적인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사상의 정착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순서는 오히려 정상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성리학은 향촌문제와 같은 사회적인 근본문제를 놓고 자기 소화의 과정을 거쳤던 만큼, 이후의 이기철학의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도 팔목할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기철학은 본래 심성(心性)에 대한 설명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심성에 대한 관심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정치적으로 치자(治者)의 양심문제에서 출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기철학의 철학화·심학화(心學化)가 훈쳐정치의 비리비도(非理非道)에 대한 심화과정으로 이해하게 된다(이태진, 1990: 142-143). 특히 사림세력은 선조초에 이르러 중앙의 정계에 대거 진출할 수 있었다.³⁾ 이들은 권신체제(權臣體制)를 부정하고 구체제에 대하여 과감한 혁신을 주장하였다(김항수, 1991: 81). 그것은 을사삭훈(乙巳削勳) 등의 문제를 비롯한 낭천제(郎薦制), 문소전(文昭殿)의 논란 등으로 표현되었다. 사림세력들은 선조의 마음을 사림에게로 향하는 회천(回天)하는 노력과 함께 척신정치의 요소를 제거하려 하였다(구덕회, 1988: 201).⁴⁾

16세기 중반 각 지방에 흩어져서 성리학을 개별적으로 연구해온 사람들은 선조(宣祖) 초년 중앙정계에 모이게 되었다. 그들은 그동안 성리학적 이상정치를 구현하려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16세기 후반의 조선의 성리학계는 이미 여러 학파로 나누어 학문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학파들 사이에는 주자(朱子) 성리학을 해석하는 데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으며, 현실정치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金恒洙, 1987: 30). 이 시기에 이르러 영남·호남·기호지역의 이황(李滉)·김인후(金麟厚)·서경덕(徐敬德)·조식(曹植) 등 거유

3) 사림의 분위기를 일정하게 이해하였던 선조가 즉위한 후 사람들은 현실을 궁정적으로 인식하여 자신은 물론 문인들을 정계에 포진시키기로 한 이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이도 있었다(申炳周, 1998: 42-43). 특히 이들은 사창제의 실시나 향약의 보급을 통하여 향촌사회에 기반을 두고 향촌사회를 이끌어 갔다.

4) 사화로 대표되는 16세기 전반의 정치현실은 사람들 대부분에게 현실정치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이를 내부에는 사화(土禍)의 피해자라는 동류의식이 커졌던 것으로 여겨진다(申炳周, 1998: 40).

(鉅儒)의 문인들은 신진사류(新進士類)로서 대거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 선조 5년 (1572)~6년(1573)경을 지나면서 서인의 영수(領袖)이었던 박순(朴淳)은 상신(相臣)의 지위에 오르고, 노수신(廬守慎)이 이조판서로서 인사권을 장악함으로써 비로소 사람이 중앙정계에서 집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구체제적 요소의 청산이 주된 당면문제가 되어 훈척계(勳戚系) 인물과 그들의 행적에 대한 비판과 탄핵이 일어나며, 한편으로는 사람의 집권을 합리화하고 그 도덕적 정통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도 나타나게 되었다(鄭萬祚, 1989: 95).

IV. 경서번역정책과정에서의 이익갈등

1. 경서번역정책문제의 대두

조선조는 향교·사학·성균관 등의 학교에서 성리학의 경서들을 주된 교과과목으로 가르쳤으며(『中宗實錄』7年 4月 庚寅條⁵⁾), 관리채용을 위한 과거에서도 경서를 시험과목으로 채택하였다. 주자성리학을 지향하는 16세기 사람의 활동은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었는데 성리학의 경서에 구결(口訣)을 붙여 언해(諺解)하는 작업도 그 중의 하나였는데,⁶⁾ 이를테면 성리학의 기본 경서인 『소학(小學)』에 구결을 붙여 한글로 언해하였다(金恒洙, 1987: 17). 선조년간의 경서언해는 고려말이래 진행되어 온 경서의 해석을 일단 마무리짓는 의미를 지녔다. 경서언해는 16세기에 진행된 개별적인 성리학 해석에서 야기되는 학문적 이견들을 조정할 필요성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인다.⁷⁾ 학파 사이의 학문적 이견을 조정하는 문제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성리학적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였다(金恒洙, 1987: 30). 경서해석의 차이는 경연(經筵)에서의 강독과정(講讀過程)에서

5) “黃海道觀察使 李惟清馳啓曰，臣按到安岳，親審童蒙赴學者百四十七人。臣抽性講論，略通詩書語孟者七人，製詩賦者八人云....”

6) 구결(口訣)은 한문(漢文) 문장을 한국어의 어순에 맞게 해석하기 위하여 끊어지는 부분에 토(吐)를 붙인 것이며, 언석(諺釋)은 구결을 토대로 문장을 해석하다가 난해한 부분에 대하여 한국어로 풀이한 것이며, 석의(釋義)는 언석한 부분에 대하여 한문으로 다시 평설(評說)을 붙여 보다 정밀하게 풀이하는 방식이며, 언해(諺解)는 경서 전체 문장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崔錫起, 1996: 8 참조).

7) 학파들간에 발생되는 경서에 대한 학문적 이견(異見)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방법은 경서를 언해하는 것이다.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흥문관은 경연에서 국왕에게 경서를 진강(進講)하기 위하여 경서들을 교정(校正)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경문(經文)의 구결과 해석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차이가 있었다. 선조는 1574년(선조 7) 학문이 정밀하고 폭이 넓은 류희춘(柳希春)에게 사서오경의 구결을 바로잡고 국역할 것을 명령하였다.⁸⁾ 선조는 류희춘의 학문이 정치(精緻)하고 박극(博極)하여 경서를 구결하고 국역을 담당할 국(局)을 신설하여 경학을 강론할 인원을 선발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 류희춘은 ‘따로 국을 설치할 필요는 없고 자신이 가을에 고향에 내려가서 만들어 바치겠다’고 대답하였다(「眉巖集」 卷18, 「經筵日記」, 甲戌(宣祖 7) 10月 10日條).⁹⁾

노수신(盧守愼)은 국가에서 경서를 번역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였으나, 교정청의 설치와 경서 국역 작업에는 참여하였다. 경서국역은 의견이 분분하였던 국가의 중대사였다. 결국 선조는 반대의견을 누른 후에야 경서번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 선조는 처음에 따로 국을 설치하고 여러 학자들을 모아 함께 번역할 것을 원하였지만 류희춘은 이에 반대하고 혼자서 번역할 뜻을 밝혔다. 다른 학자도 이 점을 우려하였는지 반드시 경서에 밝은 학자와 함께 번역할 것을 촉고하였다(金恒洙, 1987: 31-33).¹⁰⁾ 1585년(宣祖 18)에 경서번역(經書譯解)를 위한 교정청(校正廳)은 설치되었다 「朝鮮史綱目」(中) 李炳憲, 117; 「大東史」(柳寅植, 272).¹¹⁾

윤근수(尹根壽)가 총재관(總裁官)이 되고 정구(鄭述), 한백겸(韓百謙), 홍가신(洪

8) 류희춘[1513년(중종 8)~1577년(선조 10)]은 동서분당(1575년, 선조 8) 무렵의 인물로서 그의 학통을 잊거나 그와 교류가 있던 인물이 대부분 북인으로 본다. 류희춘은 경서번역을 위한 교정청의 설치 전에 사거(死去)하여 그의 학설은 교정청 번역본에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9) 上曰，凡文字吐釋之間，或者以爲，小事不必留意，然聖賢有言，未有不得於文義而能通其精微者，今四書五經口訣譯釋，紛紜不定，卿之學問精博，世所罕有，四書五經口訣及釋，卿皆詳定，亦可以設局，或欲取經學講論之員，則亦惟卿所擇，臣對曰，此事不必設局，只當與精明之人，通議而定之，但臣今方校朱子大全，無暇及他，臣孱弱之甚，衰老亦至，明年朱子大全畢印出，其秋乞歸田里而爲之。

10) 율곡언해가 교정청번역(校正廳譯解)에 크게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교정청이 퇴계문도(退溪門徒)를 중심으로 한 동인(東人)학자로 구성되어 서인의 학문적 영수였던 윤곡의 언해는 크게 반영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윤곡의 언해는 김장생(金長生) 집안을 통하여 서인계통의 학자에게 주로 활용되었다.

11) • 乙酉(宣祖十八年) 春正月 設經解 校正廳(上以經書註解，多有異同，設校正廳。博選諸儒爲官僚)<朝鮮史綱目>
• 三九一八年 乙酉(宣祖十八年) 設校正廳，校經書訓解以鄭述·崔永慶·洪可臣·韓百謙·鄭介清爲校郎<大東史>.

可臣) 등이 이에 참여하였다. 언해과정에서 참여인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전란 후의 어려운 형편에서 「주역(周易)」의 언해는 긴급한 일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었다.¹²⁾ 경서언해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면 교정청이 누구에 의해 주도되는지 알 수 있다.

경서 언해과정에 참여한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¹³⁾

노수신(盧守愼 : 退溪門人, 東人), 유성룡(柳成龍 : 退溪門人, 東人), 정구(鄭述 : 退溪門人, 東人), 정탁(鄭琢 : 退溪門人, 東人), 황정육(黃廷彧 : 西人), 정철(鄭澈 : 西人), 구봉령(具鳳齡 : 退溪門人, 西人), 김우옹(金字顥 : 退溪·南冥門人, 東人), 이산해(李山海 : 東人), 이성중(李誠中 : 李仲虎·退溪門人, 東人), 조목(趙穆 : 退溪門人, 東人), 홍성민(洪聖民 : 花潭·退溪門人, 西人), 윤근수(尹根壽 : 西人), 이덕형(李德馨 : 東人), 황신(黃愼 : 栗谷門人, 西人)

교정청(校正廳)을 구성한 인원은 학파로는 퇴계문도, 당색으로는 동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퇴계문도를 중심으로 한 동인이 경서 언해를 주도하여 율곡의 「사서언해(四書諺解)」는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퇴계의 「사서삼경석의(四書三經釋義)」가 많이 수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교정청에서 경서를 언해한 시기는 동인과 서인간의 대립이 심해가던 시기였다.¹⁴⁾ 이이(李珥)는 동인과 서인간의 갈등의 조정에 실패하고 1584년(선조 17) 사거(死去)하였다. 그 이후 퇴계·남명문인을 중심으로 한 동인과 율곡·우계문인을 중심으로 한 서인은 심각한 정치·행정적 갈등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심화되어 1589년(선조 22) 이른바 기축옥사(己丑獄事)로까지 진행되어 갔다. 1585년부터 1588년 10월까지 행해진 교정청의 경서언해는 동인과 서인간의 대립으로 동인이 집권한 가운데 퇴계문도를 중심으로 동인의 주도아래 진행되었다. 동인들이 경서언해를 주도적으로 실시하려 한 것은 성리학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노

12) 「周易」의 언해는 1603년(선조36년) 5월 완성되어 간행되었다. 이때 세조(世祖)의 「周易口訣」이 많이 활용되었다고 판단된다.

13) 참여자의 학문과 문인의 분석은 「朝鮮王朝實錄」, 「南譜 : 繼譜, 남인의 계보」, 「北譜 : 북인의 계보」와 “조선중기 유학의 계보와 봉당정치의 전개”(鄭萬祚, 「朝鮮時代史學報」, 17輯)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각 문헌 가운데 상이한 부분은 한국사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학파와 정파로 분류하였다.

14) 교정청을 설치한 1585년(선조 18)은 동인과 서인간의 갈등이 심하였던 시기이며, 동인이 정국을 주도하였던 시기라서 성흔(成渾)은 교정청 당상으로 선정되었지만 참여하지 않아 서인의 학문적 견해가 반영되기 어려운 시기였다.

력이라고 파악된다. 퇴계의 학문을 계승한다고 자부하던 퇴계의 문도들은 율곡에 의해 사서소주(四書小註)가 개정되고 『사서언해(四書諺解)』가 저술되는 현실에서 학문적인 주도권이 상실되는 위기의식을 지녔을 것이다(金恒洙, 1987: 38). 이러한 현상은 퇴계문도들이 지니는 공통적이며 보편적인 인식이었을 것이다. 이리하여 동인들은 퇴계문도 중심으로 교정청을 설치하여 경서를 주도적으로 번역하였다.

2. 이익갈등분석

경서는 서당·향교·성균관에 교재로 사용되었다. 교육기관에서 사용할 교재와 관련된 정책이므로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다. 경서의 번역에 대한 문제는 지식의 이동과 관련되고 있다. 경서에 대한 해석의 수용은 이 학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도 연관되므로 각각의 정치세력은 경서언해를 담당하는 기관에 자파의 인물을 참여시켜 자파의 학설을 경서언해에 반영하려 하였다. 경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학파의 학문적 권위 및 정치·행정적 영향력의 증대와 관련되므로 각각의 정치세력간에는 이익갈등이 발생하였다.

1) 규범적 준거

규범적 준거면에서 볼 때 동인들은 서인보다 규범에 충실하려 하였다. 이는 퇴계내지 남명학파의 원리중시사상과 연관된다. 그들은 퇴계의 사서석의(四書釋義)를 거의 완벽하게 여겨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도전을 용인하지 않는 태도였다. 퇴계는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 「退溪集」, 卷6, 36~60張)¹⁵⁾에서 삼대(三代)의 지치(至治)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명도술(明道術)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는 도술을 밝히는 주체를 인군(人君)과 민생이라고 하였으며, 나아가 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덕(君德)의 격정(格正)과 함께 민생의 교화가 표리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였다(徐廷文, 1993: 239). 동인세력은 그들의 이념적 기초를 퇴계학에 두고 있다.

서인세력은 그들의 이념적 기초를 율곡학에 두고 있다. 율곡의 기(氣) 중심적 사상은 변화적인 측면에서 현상을 보는 입장에 있었다(「宣祖修正實錄」, 卷19, 宣祖18年 5月 戊戌).¹⁶⁾ 그리하여 서인세력은 나름대로 경서를 해석하였다. 이는 퇴

15) 戊辰六條疏의 六條는 其一曰重繼統以全仁孝 · 其二曰杜讒間以親兩宮 · 其三曰敷聖學以立治本 · 其四曰明道術以正人心 · 其五曰推腹心以通耳目 · 其六曰誠修省以承天愛이다.

12. 행정논총(제42권 제1호)

계학파와 율곡학파간의 경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경서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학파간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퇴계학파의 경서에 대한 이해는 보다 철저한 이상주의적 원리주의적 성향을 지니는 반면, 율곡학파의 경우는 보다 현실주의적 성향을 지녔다.¹⁷⁾

2) 구조

1585년(선조18) 경서에 대한 언해문제를 해결하게 위하여 교정청(校正廳)을 설치하였다. 교정청은 동인위주로 구성되었다. 동인내에서도 류희춘(柳希春)은 이 기관의 설치를 반대하였고, 노수신(盧守愼)은 이를 찬성하였다. 결국 경서를 언해하겠다는 국왕의 의지가 작용하여 교정청을 설치하게 되었다. 경서언해에 참여한 자의 담당 관직은 다음과 같다.¹⁸⁾

우상 노수신(右相, 盧守信), 홍문관 제학 류성룡(弘文館 提學, 柳成龍), 예조판서 정탁(禮曹判書, 鄭琢), 예조참판 황정육(禮曹參判, 黃廷或), 우찬성 정철(右贊成, 鄭澈), 대사성 구봉령(大司成, 具鳳齡), 부제학 김우옹(副提學, 金宇顯), 이조판서 겸 홍문관·예문관 대제학 이산해(吏曹判書 兼 弘文館·藝文館 大提學, 李山海), 좌부승지 이성중(左副承旨, 李誠中), 공조좌랑 조목(工曹佐郎, 趙穆), 경기감사 홍성민(京畿監司, 洪聖民), 부수찬 오억령(副修撰, 吳億齡), 정언 이덕형(正言, 李德馨), 대사간 황신(大司諫 黃愼)

경서를 언해하는 기관의 설치에는 정치권력을 장악한 집권세력이 우위를 지니게 된다. 집권세력은 자신이 존봉하는 인물의 학문적 견해가 경서번역과정에 투

16) 류성룡의 이이에 대한 인물평에 나타나 있듯이 “그는 평탄하고 낙관적인 성품이 장점인데 아쉬운 바는 개혁하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하였다(論珥之爲人, 成龍曰“平坦樂易乃其所長也. 所恨喜變更耳.”).

17) 현실인식에 대한 두 학파의 견해차이는, 퇴계학파의 경우 율곡학파에 비교하여 볼 때 궁리(窮理) 위주이며, 율곡학파의 경우 퇴계학파보다 경장(更張) 중심이었다.

18)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南冥集(曹植)」, 「南譜」, 「朝鮮史綱目(李炳熹)」, 「來庵集(鄭仁弘)」, 「晚翠集(吳億齡)」, 「眉嚴集」, 「眉嚴日記(柳希春)」, 「栢潭集(具鳳齡)」, 「北譜」, 「西厓集(柳成龍)」, 「西堦集(黃廷或)」, 「於于集(柳夢寅)」, 「燃藜室記述(李肯懿)」, 「退溪集(李滉)」, 「栗谷集(李珥)」, 「牛溪集(成渾)」, 「拙翁集(洪聖民)」, 「芝川集(黃廷或)」, 「擇里誌(李重煥)」, 「坡谷遺稿(李誠中)」, 「鶴峯集(金誠一)」, 「漢陰文稿(李德馨)」을 활용하여 관직을 파악하였다. 경서언해시기 중에 관직의 변경이 있었으나, 대체로 처음의 관직을 활용하였다.

입될 경우 학문적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고 권력의 유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리하여 집권세력인 동인 주도로 경서언해가 시작되었다. 동인의 일부는 교정청의 설치에는 반대를 하였지만 교정청이 설치되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동인의 경우 정통유학의 철저한 계승에 중점을 두고 이를 연구하였으므로 이 분야에 정통한 학자가 많았다. 서인세력은 경서언해를 시작하여 완성될 때까지 동인에 비하여 정치·행정구조에 참여가 저조하여 경서언해를 위한 정책수립의 의견 표출에 제약을 받았다.¹⁹⁾

3) 참여자

경서를 언해하기 위한 교정청의 참여자는 퇴계학파의 동인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로 인하여 교정청의 언해본에 이황의 주장이 많이 반영되었고, 이의 주장은 별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²⁰⁾ 동인에 속하는 인물은 이산해(李山海), 정탁(鄭琢), 류성룡(柳成龍), 김우옹(金宇顥), 이성중(李誠中), 정구(鄭述), 조목(趙穆), 이덕형(李德馨)이었다. 이들은 퇴계학파 내지 남명학파(南冥學派)의 주축이었다. 그리고 서인에 속하는 인물은 정철(鄭澈), 홍성민(洪聖民), 구봉령(具鳳齡), 황정육(黃廷璣), 오억령(吳億齡), 황신(黃慎)이었다. 이들은 대개 율곡(栗谷) 이이(李珥) 혹은 우계(牛溪) 성흔(成渾)과 관련이 깊은 인물이다.

경서언해를 위한 교정청이라는 기관의 설치와 언해작업의 참여자는 동인인 퇴계학파 내지 남명학파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서인인 율곡학파 내지 우계학파와 관련이 깊은 인물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 환경

남인의 중심지이며 연수(淵藪)인 경상좌도는 산이 많고 전답이 적어 재화가 풍

19) 율곡의 사후 서인의 학문적 영수였던 성흔(成渾)은 1585년(선조 18) 교정청에서 학자들을 불러 모을 때 부름을 받지만 나아가지는 않고 있다. 이는 퇴계문도가 중심이 된 교정청에 자신의 견해를 반영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조선중후기 정치행정구조의 관직 점유에서 서인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교정청의 설치 당시에는 동인의 관직 점유가 높았다.

20) 이황의 주장이 교정청의 언해과정에 어떤 부분이 반영되고 있으며, 이의 주장이 교정청의 언해과정에 어떤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가는 교정청 언해, 사서석의 및 사서언해 등에 대한 전반적 분석이 필요하므로 차후 연구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단지 교정청의 언해와 율곡언해의 차이는 해석의 차이를 나타내는 토를 달리 불이고 있는데서 쉽게 알 수 있다.

14. 행정논총 (제42권 제1호)

부하지 못하였다. 예안은 퇴계 이황의 고향이며, 안동은 서애 류성룡의 고향이다. 고을 사람들은 그들이 거쳐하였던 곳에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낸다. 안동과 가까운 이웃 다섯 고을은 사대부가 가장 많은데, 퇴계와 서애 문인들의 자손이 많이 산다. 인륜과 의리를 밝히고 도학을 존중하여 비록 외딴 마을이며 한산하고 조그마한 동리일지라도 글 읽는 소리가 들리며, 누더기를 입고 오막살이에 거쳐더라도 모두들 도덕과 성리학에 대해 이야기한다[「擇里誌(李重煥)」, 「八道各論」, '慶尙道'條].²¹⁾

서인의 중심지인 기호 지역과 해주의 경우 안동에 비하여 농업환경이 풍요로웠다.²²⁾ 이들은 농업자본을 활용하여 상업자본에 투자하고 이를 기초로 정치행정의 권력의 장악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안동처럼 농업자원이 부족한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답의 운영에 대한 관심보다 관료로 충원될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독서에 투입하였다. 경서에 대한 관심은 문집 생산량으로도 측정하여 볼 수 있다. 안동지역의 경우 문집 간행의 다양성과 양에 비교하여 볼 때 서인의 중심지역인 기호지역에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다. 이러한 사실은 16세기뿐만 아니라 조선중후기 전반에 걸쳐 해당된다. 이리하여 동인은 경서에 대한 이해가 깊었으며, 교정청 언해본 간행에 그들의 견해가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3. 종합 : 갈등의 전개와 종결

경서번역정책은 경서 번역의 주도권 담당 문제로 정파간에 이익갈등이 발생하였다. 경서를 언해하기 위한 교정청의 인적구성에 구성원의 상당수를 점유하는 정파는 경서의 언해과정에 자기 학파의 견해를 상당부분 반영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퇴계학파의 경우 구성원의 상당수를 점유하여 자파(自派)의 의도대로 경서를 언해하였다. 여기서 퇴계학파와 율곡학파의 이익갈등은 학문의 권위 확립에 초점이 주어졌고, 갈등은 교정청이라는 기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참여한 것으로 보아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법이나 규범을 지키는 경쟁의 형

21) 禮安, 卽退溪李滉之鄉, 安東, 卽西厓柳成龍之鄉. 鄉人, 卽所居, 並立祠俎豆之. 故茲五邑, 隣比相近, 最多士大夫, 而皆退溪·西厓之門人子孫也. 明倫義·重道學, 雖孤村殘里, 輒有讀書聲, 鶴衣翁牖, 亦皆談道德性命矣.

22)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에는 정치적으로 사림정치가 정착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지주제가 확고하게 자리잡고 상업이 발달하여 화폐경제가 태동하기 시작하였다.(高英津 1991, 30).

태로 전개되었으며, 그 귀결은 동인세력이 임진왜란 때까지 정치·행정권력을 장악하였기에 권력유지였다. 교정청의 언해(諺解)는 경서에 대하여 상당한 학식을 지닌 퇴계학파에 의해 주도되었고, 율곡학파는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서인의 경우, 경서언해과정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사퇴하려 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율곡(栗谷)의 사서언해(四書諺解)는 교정청언해본(校正廳諺解本)에 크게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V. 문묘종향정책과정에서의 이의갈등

1. 문묘종향정책문제의 대두

조선조에 있어서 성리학은 국가의 공인된 학문으로서 통치이념의 바탕일 뿐 아니라 국정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권력행사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조선조는 성리학의 이념을 정치·행정에 구현함으로써 정치·행정체제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통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공자의 학문을 이어 몸소 실천하고 가르쳐 요순(堯舜)시대와 같은 이상사회를 만들고자 하였던 스승들을 문묘에 모시고 제사지내는 문제는 앞으로 학문을 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지침이 되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공자와 그 제자들을 제사지내는 문묘의례는 스승을 어떻게 예우하여야 하는가의 지침으로 삼아 정비하고, 공자의 학문 즉 도학(道學)을 전수하여 모범이 된 스승들을 문묘에 종사하여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학문을 올바르게 하는가를 보여주어야 했었다.(池斗煥, 1994: 135) 조선조에서는 이를 국가의 중요한 정책 목표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조선조 관인들은 신민의 사표가 되고 국가적으로 존경하여야 할 인물을 선정하여 이들을 문묘(文廟)에 종향하는 것을 국가의 중요한 문화활동으로 파악하고 있었다.²³⁾ 문묘 종향인물의 선정은 앞으로 어떤 문화적 풍토를 이를 것인가와 관련되고 있다. 이는 뛰어난 유현을 문묘에 종향하여 존현(尊賢)하는 것으로서 지치(至治)를 향해 가고 있던 사립의 학문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金鎔坤, 1983: 292).

오현(五賢)인 김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조광조(趙光祖), 이언적(李彦迪), 이

23) 이들은 문묘에 종향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유현(儒賢)의 문집간행에도 세력간에 시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徐廷文, 1993: 215-265). 조선시대 문집의 간행은 경제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의 공론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16 · 행정논총 (제42권 제1호)

황(李滉) 등의 문묘종사 문제는 중요한 정책문제였다. 문묘종사 문제는 주자 성리학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을 도통(道統)으로 종향·송상함으로써 유도(儒道)를 수립하려는 상징성을 띤 운동이었던 셈이다. 사람이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자신들의 학문적 종지(宗旨)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정치적 차원에서의 정당성 및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원(伸冤) 및 오현의 문묘종사를 요구하였다(金燉, 1999: 16). 이 문제는 중종대와 마찬가지로 유생들의 상소로 시작되었다(「宣祖實錄」, 卷4, 宣祖 3年 4月 庚申; 卷7, 宣祖 6年 8月 乙亥; 『大東史』(1610年), 宣祖 3年條).²⁴⁾

1573년(선조 6) 8월 김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의 사현(四賢) 외에 이황이 추가되면서 오현종사(五賢從祀)로 문묘종사(文廟從祀·陞廡)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전개되었다(「退溪集」, 「年譜」(柳成龍 撰), 癸酉年(1573, 宣祖 6) 8月條; 甲戌年(1574, 宣祖 7) 2月條). 당시 유생들이 이황을 추가한 것은 문묘종사 논의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던 조관(朝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金燉, 1994: 152). 1580년(선조 13) 10월 문묘에서 학술부정자(學術不正者)를 출향하고 대신 양시(楊時) 등과 오현(五賢)을 문묘에 종향할 것을 요청하였다(金鎔坤, 1983: 419). 오현의 승무(陞廡)운동은 40여년간의 줄기찬 요구 끝에 1610년(광해군 2) 7월에 오현을 문묘에 종사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였다.(「光海君日記」 2年 7月條).

이들은 기본적으로 도학정치(道學政治)가 정치이념으로서 강조되던 시기에 사람의 도학적 정통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집권의 명분을 확립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오현의 종사문제와 관련하여 각 정파의 주요 이슈는 오현의 문묘종사의 적부(適否)였다. 남인들은 이들의 문묘종사를 지지하였고, 조식은 이언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정인홍을 비롯한 북인들은 이언적과 이황의 출향을 요구하며, 이들의 문묘종사를 반대하였다(「光海君日記」 3年 2月 참조; 「南冥集 別集」, 卷2, 言行總錄).²⁵⁾ 그리고 이이 역시 이언적의 문묘종향에 대해 부정적이었다(「栗谷全書」, 卷2, 經筵日記2, 宣祖 6年 8月條).²⁶⁾ 이리하여 남인과

24) 三九〇三庚午(宣祖三年)館學請以金宏弼·鄭汝昌·趙光祖·李彥迪從祀廟
答曰重大之事，不可輕議(大東史).

25) 先生曰 復古(李彥迪)，學聖賢之道，而致知之見不明，當時大小尹之禍，朝夕必發國勢机
搃，愚婦所知，猶不早退於官卑之日，以至於負重，而不可解，流死異域，恐虧於明哲之
也.<南冥集 別集>

26) 金文敬·鄭文獻 則言論風旨微而不顯，李文元 則出處頗有可議者。惟趙文正 倡明道學，
啓牖後人。李文純 沈滯義理，模範一時 斯二人者，表出從祀 則夫誰曰不可哉。

북인·서인들간에는 이익갈등이 발생하였다. 북인들은 특히 이언적(李彦迪)의 문묘종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2. 이익갈등분석

오현의 문묘종사문제에 대하여 정파간의 갈등관계를 보면, 특히 이언적에 대하여 남인은 찬성하고 서인과 북인은 반대하였다.

1) 규범적 준거

규범적 준거면에서 남인은 조광조·정여창·김평필·이언적·이황 등 오현이 문묘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았으나, 서인과 북인은 이언적의 문묘종향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렇게 된 원인은 남인은 보다 공맹사상의 해석에 주류적 견해를 지닌 반면에 북인은 조식의 영향을 받아 공맹사상을 탄력적으로 해석하였다. 북인은 조식의 학풍을 이어 노장사상의 영향을 다소 받았으며, 서인의 경우 율곡 이이의 영향을 받아 공맹사상을 보다 현실적·실용적으로 적용하려 하였다(「燃藜室記述」, 卷18 宣祖朝故事本末 宣祖朝相臣 ‘鄭琢條’).²⁷⁾ 결국 남인들은 이언적의 문묘종향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한 반면, 북인과 서인들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2) 구조

이 당시 권력구조면에서 볼 때 주요인물은 남인의 경우 류성룡, 김성일 등이 정치·행정에 참여하고 있었고, 북인의 경우 정인홍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서인의 경우 성훈이 참여하고 있었다. 남인의 경우 대체로 권력구조의 중심부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북인과 서인은 권력구조의 주변부에 참여하고 있었다. 권력구조의 전환으로 류성룡과 김성일이 주변부로 가고 임란후 정인홍을 중심으로 한 북인이 권력의 중심부에 오게 된다. 이러한 권력구조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오현이 문묘에 종향될 수 있었던 것은 조정의 분위기가 많이 작용하였다. 북인이 권력구조에

27) 이황(李滉)은 조식(曹植)의 인간적 특성에 대해 ‘오물경세(傲物輕世)’, ‘고항지사(高亢之士)’, ‘난요이중도(難要以中道)’, ‘노장위승(老莊爲崇)’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정만조(鄭萬祚)도 조식(曹植)의 학풍을 북송(北宋)의 성리학이나 노장학(老莊學)은 물론 다양한 학문과 사상을 접충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鄭萬祚, 2001: 94~98)고 한다.

서 중심적인 위치를 지녔지만,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여 오현의 문묘 종향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북인들은 집권세력으로서 오현의 문묘종향결정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들의 논리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 조직구조 내에서 모든 결정이 반드시 집권세력 위주로 결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적어도 오현의 문묘종향에는 조정 내의 공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3) 참여자

참여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볼 때 류성룡이나 김성일 등은 퇴계의 문인인 반면,²⁸⁾ 정인홍은 남명 문인이다. 남인의 경우 이언적의 문묘종향을 주장한 반면 남명학파·율곡학파에서는 이언적의 문묘종향을 반대를 하였다. 이렇게 된 원인은 남명학파에서는 자신들이 존중하는 남명이 문묘종향에 보다 적합한 인물이라고 인식하였다. 남명의 문묘종사운동을 추진했던 정인홍은 북인정권 내에서 집권의 명분과 이념을 제시하여 산림(山林)의 위치에 있었다. 정인홍은 스승인 남명이 승무(陞廡)될 수 있는 동방유현(東方儒賢) 속에 포함되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먼저 이언적과 이황을 배척함으로써 큰 물의를 일으켰다. 율곡의 경우도 이언적의 문묘종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지녔다. 정인홍은 경상우도(慶尙右道)에서 남제서원(藍溪書院)과 함께 대표적 서원이던 덕천서원의 유생조직을 활용하여 100여 명의 유생으로 하여금 연소(聯疏)를 올리게 하였다. 덕천서원 「원생록(院生錄)」에 등재된 유생의 본거지가 진주·함양·합천·초계·삼가·단성·안의·의령 등지로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세력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²⁹⁾

정인홍을 비롯한 북인들은 남명을 제외하고 이들만 문묘에 종향하는 데에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오현의 문묘종향에는 학문적 성향을 비롯한 학파적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환경

16세기 당시 신진사립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오현의 문묘종

28) 서애 류성룡의 경우, 회재 이언적의 「구경연의(九經衍義)」 발문을 짓는 등 경상좌도의 남인을 인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29) 정인홍은 집권세력으로서의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자기 스승의 추존사업(追尊事業)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삼가(三嘉)의 용암서원(龍岩書院), 김해(金海)의 신산서원(新山書院)을 비롯하여 전라도(全羅道) 강진(康津)에도 남명을 배향하는 서원의 건립을 추진하였다(鄭萬祚, 1989: 101-102).

사를 청원하였다. 신진사류에 대한 선조의 생각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徐廷文, 1993: 221). 안동이 영남의 중심지가 된 것은 퇴계 이황의 존재 때문이었다. 도산서원은 남인의 정신적 지주였으며, 퇴계가 고안한 예안향약(禮安鄉約)은 도내의 모든 고을에서 사립 통치의 기준이 되었다(李泰鎮, 1990: 202).³⁰⁾ 지지기반면에서 볼 때 퇴계학파는 안동을 비롯한 경상좌도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다. 이들은 폭넓은 문묘종향 및 서원제향활동을 통하여 폭넓은 기반을 구축하였다(薛錫圭, 1994: 155). 남명학파는 진주를 중심으로 한 경상우도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다. 율곡학파의 경우 기호지역과 해주를 중심으로 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다. 남인의 중심지인 경상좌도의 경우 산악지대라서 대개 중소지주층이 위주가 되고, 북인의 중심지인 진주나, 서인의 중심지인 기호지방과 해주와 파주의 경우 평야가 넓다고 할 수 있다. 북인과 서인은 남인에 비하여 대지주층이었다.

조선시대의 경우 사인(土人)들은 관직에 충원됨으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경우 관료로서의 진출에 대한 욕구가 강하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했던 경상좌도는 주로 학문에 몰두하여 관리로 진출하고자 하는 성향이 많았다. 좌도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경상우도는 상대적으로 중앙관계진출에는 소극적이었으며, 경제적 부(富)를 기초로 임관 때 의병을 일으키는 등 보다 재야적 성향을 지녔다. 기호지역과 해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율곡학파는 다른 학파에 비하여 왕실과 관련이 깊고 이들은 왕실과 연관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넓혀갔다.

3. 종합 : 갈등의 전개와 종결

오현의 문묘종사문제에 대하여 정인홍은, 이언적의 경우 을사사화 당시 사립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로 인하여 이황의 경우 출처의 불분명을 들어, 이들의 문묘종사를 논박하였다. 정인홍은 이언적과 이황이 문묘에 종향되기 전이나 된 후에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인홍은 성균관 유생들에 의하여 청금록(靑衿錄)에서 삭제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분쟁이 일어났다. 정인홍의 제자 문경호(文景虎) 등은 여러 가지 형태로 스승이 수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스승

30) 서원 보급에 주력하였던 퇴계에 있어서 서원과 향약의 관계는 직접 연결되지 못하였다. 20여년이 지난 유흥에 이르러서 서원이 향약실시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점은 퇴계와 달리 사회개혁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던 유흥의 정치자세가 서원문제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난 것이라 하겠다(鄭萬祚 1989, 99).

을 변호하였으나, 사론(士論)과 당론(党論)이 얹혀서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었다(李離和, 1984: 60). 이이의 경우도 이인적은 문묘종향이 부적합하다고 하였다. 오현의 문묘종사는 임란 이후에 더욱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선조조에는 결정되지 못하고(金燉, 1999: 14), 광해군 2년(1610) 7월에 구체적인 절차와 절목(節目)을 마련하여 2개월 뒤에 교서가 반포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金燉, 1999: 37)³¹⁾.

이와 같이 오현의 문묘종사라는 문화정책을 둘러싼 정파간의 이익갈등은 학문적 권위 인정여부가 초점이었다. 이들이 추구하는 이익은 문화적 이익이었으며, 이익갈등은 경기규칙을 어느 정도 지키는 대립의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북인의 핵심세력이 권력에서 이탈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VI. 정책적 함의와 결론

교육·문화정책과정에 있어서 정파간의 이익갈등현상을 16세기 조선조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조선조에서 16세기는 15세기와 17세기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 시기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6세기 경서번역정책이나 문묘종향정책은 17·18세기 조선조의 교육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고 있다.

경서번역정책의 경우, 서당·향교·사학·성균관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경서의 언해에 관한 것이었다. 각 정파는 경서를 언해함에 있어 주도권의 장악을 위하여 갈등을 벌였다. 집권세력인 동인의 의도대로 동인이 존봉하는 인물인 퇴계의 사서석의(四書釋義)가 교정청의 언해과정에 반영되었다. 이는 동인의 영향력의 증대 즉, 정치적 이익과 관련되고 있다. 동인과 서인간의 이익갈등은 경쟁의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갈등의 귀결은 권력의 유지였다. 즉 교육정책은 조직구조에서 대다수를 점유한 정파의 의지대로 정책이 결정되었다.

한편 문묘종향정책의 경우 오현의 문묘종향에 관한 것으로, 정파의 학문적 권위와 관련이 깊었다. 문묘종향 인물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이익갈등은 남인과 북인·서인간에 발생하였는데, 이익갈등은 상대방이 존봉하는 유현의 축출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을 인정하는 정도가 낮고 상소 등을 통하여 주장한 것으로 보아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대립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익갈등의 결과는 오

31) 광해군 2년(1610) 회재(晦齋)·퇴계(退溪)를 포함하여 오현(五賢)의 문묘종사는 이루어졌다. (「退溪集」, 「年譜」, 卷3 附錄, 「言行總錄」.)

현의 문묘종향에 반대한 북인의 핵심세력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권력원으로부터 축출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북인에 비해 서인은 이언적의 문묘종향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반대하였다. 북인이 집권세력이었음에도 정파의 의지대로 정책이 결정되지 못했던 것은 정부조직내의 다른 세력의 영향력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문묘종향정책 결정에 환경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서번역정책은 오늘날 지식정보의 이동과 관련되고, 문묘종향정책은 이달의 문화인물 선정 정책 등과 연결되고 있다. 16세기의 교육·문화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정책이 제기되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오늘날 시사하는 바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문물과의 교류가 빈번한 이즈음 외국문헌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번역청의 설립이 요청된다. 정치·행정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는 이즈음 한국에서 국민의 사표 선정과 이를 통한 국민의 도덕심 양양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16세기 경서번역정책이나 문묘종향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제까지 한국에서 정치·행정사 연구는 개인의 정치·행정사상이나 정치·행정이념에 치우쳐 왔으며,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던 정치·행정구조나 정치·행정세력 및 정치·행정환경에 대한 관심을 중대하여 행정학 논의의 폭과 깊이를 넓힐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經國大典」,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南冥集(曹植)」, 「南譜」, 「大東史(柳寅植)」, 「來庵集(鄭仁弘)」, 「晚翠集(吳億齡)」, 「眉嚴集」, 「眉嚴日記(柳希春)」, 「栢潭集(具鳳齡)」, 「北譜」, 「西厓集(柳成龍)」, 「於于集(柳夢寅)」, 「燃藜室記述(李肖翼)」, 「退溪集(李滉)」, 「栗谷集(李珥)」, 「牛溪集(成渾)」, 「拙翁集(洪聖民)」, 「芝川集(黃廷或)」, 「擇里誌(李重煥)」, 「坡谷遺稿(李誠中)」, 「鶴峯集(金誠一)」, 「漢陰文稿(李德馨)」.

高英津. (1991). 16세기 후반 葬祭禮書의 發展과 그 意義. 「奎章閣(서울大學校 圖書館)」, 14 : 29-62.

구덕희. (1988). 선조조 후반(1594~1608) 정치체제의 재편과 정국의 동향. 「한국 사론」, 20 : 243~265.

金 燉. (1994). 宣祖代 儒生層의 公論形成과 朋黨化. 「震檀學報(震檀學會)」, 78. (創立60週年特輯號) : 147-171.

_____. (1999). 朝鮮中期 士林의 公論과 그 구현형태: 光海君代의 草野言論을 中心으로. 「國史館論叢(國史編纂委員會)」, 86 : 1-40.

金鎔坤. (1983). 16世紀 士林의 文廟從祀運動: 學問動向과 士林의 至治運動과 관련하여. 金哲峻博士華甲記念史學論叢刊行委員會. 「金哲峻博士華甲記念史學論叢」. 서울: 知識產業社.

金恒洙. (1987). 16세기 經書諺解의 思想史的 考察. 「奎章閣(서울大學校 圖書館)」, 10 : 17-39.

徐廷文. (1993). 退溪集 初刊과 月川 西厓 是非. 「北岳史論(國民大學校 國史學科)」, 3 : 215-265.

薛錫圭. (1994). 16세기의 儒疏와 公論政治. 「文學博士學位論文」 慶北大學校 大學院.

申炳周. (1998). 16세기 處士型 士林의 擡頭와 學風: 南冥 曹植과 花潭 徐敬德을 중심으로. 「奎章閣(서울大學校 圖書館)」, 21 : 33-58.

安 廊. (1922,大正 12). 「朝鮮文明史」. 京城: 淹東書館.

- 李秉甲. (1988). 「朝鮮朝의 政策決定過程에 있어서 利益葛藤: 17·18世紀 南人과 西人(특히) 老論간의 關係를 中心으로」. 行政學博士學位論文. 高麗大學校 大學院.
- _____. (1995). 체제유지정책과정에 있어서 봉당간의 이익갈등 분석: 정파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한국정치학회)」, 29(2) : 485-497.
- 李秉然. (1999). 「朝鮮前期 士林派의 現實認識과 對應」. 서울 : 一潮閣.
- 李離和. (1984). 南冥集의 異說檢討: 內容의 增冊문제와 關聯하여. 「奎章閣(서울大學校 圖書館)」, 8 : 45-61.
- 李泰鎮. (1983). 壬辰倭亂 克服의 社會的 動力: 士林의 義兵活動의 基底層 중심으로. 「韓國史學(韓國精神文化研究院)」, 5 : 45-74.
- _____. (1988).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士禍·黨爭篇」. 「汎潮學術論叢」 2. 서울 : 汎潮社.
- _____. (1990). 18세기 南人의 政治的 쇠퇴와 嶺南地方. 「民族文化論叢(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1 : 195-205.
- _____. (1998). 「朝鮮儒敎社會史論」. 서울 : 知識產業社.
- 鄭萬祚. (1989). 朝鮮朝 書院의 政治·社會的 役割. 「韓國史學(韓國精神文化研究院)」, 11 : 77-119.
- _____. (2001). 朝鮮中期 儒學의 系譜와 朋黨政治의 展開. 「朝鮮時代史學報(朝鮮時代史學會)」, 17(2001. 6) : 85-110.
- _____. (2002). 朝鮮中期 政治史 研究에 대한 再檢討. 「韓國學論叢(國民大學校 韓國學研究所)」, 25 : 89-111.
- 정호현. (2001). 朝鮮後期 北人의 學問傳統과 政治理念. 「東方學志(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113 : 211-269.
- 鄭弘俊. (1988). 壬辰倭亂 祉후 統治體制의 整備過程: 性理學的 秩序의 強化. 「奎章閣(서울大學校 圖書館)」, 11 : 31-47.
- 崔錫起. (1996). 朝鮮 前期의 經書解釋과 退溪의 「詩釋義」. 「退溪學報(退溪學研究院)」, 92 : 63-89.
- 池斗煥. (1994). 「朝鮮前期 儀禮研究: 性理學 正統論을 中心으로」. 서울 : 서울大學校 出版部.
- 韓明基. (1992). 柳夢寅의 經世論 研究. 「韓國學報(一志社)」, 67 : 118-153.

Abstract

Analysis of the Interest Conflict between Parties in the Educational and Cultural Policy Process in the Chosen Dynasty

- Main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ional Parties during 16th Century -

Byung-Kap Lee

This article is the analysis of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parties in educational and cultural policy process during 16th century.

In the process of educational policy, factional parties wanted to have the initiative concerning the policy for translation in the confucious books.

The ruling party was Easterners[Dongin(東人)], they respected Yi Hwang(李滉) who wrote Kyungseoseoky(經書釋義). His books were reflected on the process of translation in the correction authority(校正廳). It signifies the increase of influence of Easterners, for example, political interest.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Dongin and Westerners[Seoin(西人)] was progressed through their competition. As a result of the conflict, the party of Easterners[Dongin(東人)] reinforced their political power.

In the process of cultural policy, factional parties wanted to be selected in the Confucian Schrines(文廟), whom they worshiped.

The conflict of another interest arose among Southerners[Namin(南人)], Northerners[Pukin(北人)] and Westerners. The type of conflicts was each other's antagonism and its consequence was Pukin's leader's expulsion out of the official position after several years. The interest of Namin was reflected in the process of placing the Confusion Schrine.

【Key words : Interest Conflict, Factional Parties, Confucious Books, Confucian Schrines 16th Centuries】